

보도시점 2023. 4. 2.(일) 12:00 (2023. 4. 3.(월) 조간)

2분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안전 감독 및 컨설팅·교육 집중

- 건설업 사고사망자 감소세에도 중규모 현장(120~800억원)은 증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중규모 건설공사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올해 2분기를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불시감독, 컨설팅,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1년 357명에서 '22년 341명으로 16명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12명 감소하였으나('22.1분기 73명 → '23.1분기 61명<잠정>),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50억~800억원의 중규모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16→24명, 8명), 총공사금액 1억~50억원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소폭 감소(27→23명, △4명)하는데 그쳤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분기에 불시감독을 집중하여 핵심 사망사고 위험요인 안전수칙 위반사항(불입1)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컨설팅 및 교육 사업을 통해 건설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먼저, 중규모 건설공사(50억~800억원)에 대해 올해 감독 목표 물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1,3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 '23년 중·대규모 건설현장 불시감독 계획:

(전체) 3,000개소 (1분기) 500개소<완료>, (2분기) 1,300개소, (3·4분기) 1,200개소

소규모 건설공사(1~50억원)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발생, 평가등급 저조(C·D 등급) 등 취약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함께 해당 기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 소규모 공사 발주자는 고용부 지정 전문지도기관과 계약 체결(의무)

→ 지도기관은 월 2회 기술지도 실시 → 시공사는 기술지도에 따라 위험요인 개선조치

아울러, 4월부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작하여 500여개 중견·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산업안전 분야)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합동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지원하고, ‘안전교육의 날’을 활용하여(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중규모 건설공사 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핵심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최근 사망사고 사례 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대형 건설사는 위험성평가 도입 및 내실화 등을 통해 비교적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견·중소 건설사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지난 11월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기업의 자기규율(Self Regulation) 예방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되,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건설업 핵심 사망사고 위험요인별 안전수칙
건설현장 위험요인별 사망사고 현황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상원 (044-202-8935)
		담당자	사무관	유종호 (044-202-8936)
		담당자	주무관	강혜림 (044-202-8941)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용다솜 (044-202-8902)

붙임 1

건설현장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

구 분	위험요인	핵심 안전수칙	위험요인	핵심 안전수칙
사 고 다 발 12 대 위 험 요 인	공통 안전조치 : ❶ 안전난간 & 작업발판 ❷ 추락방호망 ❸ 안전대 부착설비			
		「지붕」 4년간 169명 사망 ▶ 채광창 덮개 설치 ▶ 폭 30cm 이상 발판 설치		「단부·개구부」 4년간 157명 사망 ▶ (단부)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 (개구부) 덮개 설치 및 고정
		「비계」 4년간 98명 사망 ▶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 작업발판 고정(뒤집힘 방지)		「사다리」 4년간 80명 사망 ▶ 말비계·이동식비계 등으로 대체 ▶ 2인 1조 작업, 아웃트리거 설치
		「철골」 4년간 80명 사망 ▶ 철골(보) 조립 전 지상에서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 철골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		「거푸집·동바리」 4년간 55명 사망 ▶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준수 ▶ 높이 4.2m 이상: 시스템 동바리 사용
		「이동식비계」 4년간 49명 사망 ▶ 최상단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 구름방지장치, 아웃트리거 설치 ▶ 작업자 태운 상태에서 이동금지		「달비계」 4년간 48명 사망 ▶ 로프, 구명줄 별개의 고정점에 묶음 ▶ 로프·벽 접촉부 마모방지 조치
	공통 안전조치 : ❶ 지반상태 확인(전도방지) ❷ 작업반경 출입통제(접촉방지) ❸ 유도자 배치			
		「굴착기」 4년간 85명 사망 ▶ 작업전 후방카메라 작동 확인 ▶ 운전원 좌석안전띠 착용 ▶ 작업장치 안전핀 체결		「고소작업대」 4년간 78명 사망 ▶ 작업대에서는 안전대 착용 ▶ 아웃트리거, 브레이크 설치 ▶ (시저형)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트럭」 4년간 75명 사망 ▶ 현장 제한속도 준수 ▶ 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 분리		「이동식크레인」 4년간 43명 사망 ▶ 정격하중 준수 / 혹 해지장치 사용 ▶ 아웃트리거 설치
대 형 사 고 위 험 요 인		「굴착면」 4년간 44명 사망 ▶ 흙막이 지보공 설치 또는 굴착면 적정 기울기 준수 ▶ 비닐 덮개 등 빗물 침투방지		「흙막이·지보공」 4년간 15명 사망 ▶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준수 ▶ 상부 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용접」 4년간 48명 사망 ▶ 용접장소 인근 가연물 제거 ▶ 불티비산방지덮개, 소화기 비치		「타워크레인」 4년간 18명 사망 ▶ 설치·해체·인상 작업계획 수립·준수 ▶ 정격하중 준수 / 혹 해지장치 사용
		「항타기」 4년간 11명 사망 ▶ 설치 지반 깔판·깔목 설치 ▶ 작업반경 출입금지		「건설용리프트」 4년간 8명 사망 ▶ 설치·해체·인상 작업계획 수립·준수 ▶ 리프트 출입문 임의개방 금지

안전모 · 안전대 착용! 작업 전 안전점검(TBM)! 생명을 지킵니다

붙임 2

건설현장 위험요인별 사망사고 현황('19~'22년, 승인통계)

구 분		계	1억 미만	1~50억	50~120억	120~800억원	800억원 이상
건축 및 구조물	비계	206	54	104	21	13	14
	비계 ¹⁾ 및 작업발판	98	13	54	16	6	9
	이동식비계	49	18	20	4	4	3
	달비계	48	19	27	0	0	2
	말비계	11	4	3	1	3	0
	지붕	169	115	48	3	2	1
	단부 및 개구부	157	30	79	15	16	17
	사다리	80	36	28	2	9	5
	철골	80	9	55	9	6	1
	거푸집 및 동바리	55	2	18	3	18	14
	사면·암반	44	12	18	5	3	6
	계 단	21	3	16	1	1	0
	흙막이 지보공	15	0	8	1	5	1
	기타 구조물 ²⁾	141	46	49	8	15	23
	소 계	968	307	423	68	88	82
기계 장비	굴착기	85	22	36	6	14	7
	고소작업대	78	24	34	7	7	6
	트럭	75	29	24	5	13	4
	이동식크레인	43	6	18	5	6	8
	타워크레인	18	1	3	1	8	5
	콘크리트펌프카	13	0	6	0	2	5
	항타기·항발기	11	0	4	1	4	2
	콘크리트믹서트럭	9	3	2	0	1	3
	기타 기계장비 ³⁾	66	10	25	3	14	14
	소 계	398	95	152	28	69	54
부속물 ⁴⁾ 및 설비 ⁵⁾		222	56	95	12	38	21
기 타 ⁶⁾		117	33	57	8	12	7
총 계		1,705	491	727	116	207	164

1) 강관비계, 시스템비계, 강관틀비계 등

3) 불도저, 크래머, 지게차, 승강기, 리프트 등

5) 용접장치, 배관, 탱크 등

2) 지표면, 맨홀, 안전시설물 등

4) 전선·전기설비, 각재·강재, 슬링·후크 등

6) 화학물질, 동식물, 자연환경 등